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골절

논문제목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골수내정 치료에서 경피적 환상 강선 고정술의
유용성

영문제목 **Efficacy of Percutaneous Cerclage Wiring in IM Nailing of
Subtrochanteric Femur Fractures**

발표자 김희수 책임저자 박기철

저자 박기철, 김희수

기관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대퇴골 전자하부는 해부학적 위치상 전자부와 달리 해면골이 적고 피질골의 혈류가 부족하며, 생역학적으로 고도의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이므로 골절시 지연 유합 혹은 불유합 등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고 견고한 내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골절의 정복을 위한 관혈적 도달법은 골절 주위의 생물학적 환경을 파괴하여 불유합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저자들은 대퇴골 전자 하 골절의 골수내정 치료에서 최소 절개를 통한 경피적 환상 강선 고정술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대퇴골 전자하부는 해부학적 위치상 전자부와 달리 해면골이 적고 피질골의 혈류가 부족하며, 생역학적으로 고도의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이므로 골절시 지연 유합 혹은 불유합 등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고 견고한 내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골절의 정복을 위한 관혈적 도달법은 골절 주위의 생물학적 환경을 파괴하여 불유합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저자들은 대퇴골 전자 하 골절의 골수내정 치료에서 최소 절개를 통한 경피적 환상 강선 고정술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결과 : 평균 수술시간은 132분(75~180분)이었고, 평균 C-arm 노출시간은 66초(30~145초)이었다. 8예에서 만족할만한 정복을 이루었지만, 1예에서는 경피적 환상 강선 고정만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여 먼저 Collinear clamp를 이용하여 정복 후 추가적으로 강선 고정을 하였다. 전 예에서 골이식술 없이 골유합을 얻었으며, 골유합 기간은 평균 15주(11~24주)이었다. 방사선 사진상 5도 이상의 부정정렬, 1cm 이상의 단축, 내고정물의 실패 등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결론 : 대퇴골 전자 하 골절에서 골수내정 고정술시 골절의 정복을 위해 시행한 경피적 환상 강선 고정술은, 골절 부위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골절편으로의 혈류를 보존할 수 있어 불유합의 위험이 낮으며, 비교적 견고한 해부학적 정복을 이룰 수 있어 유용한 술식으로 사료되나, 보다 많은 증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 :

대퇴 전자하부 골절, 경피적 환상 강선 고정술
